韓國文學論叢 第24輯(1999. 6) pp. 191~208

동양의 탈근대적 주체 모색과 양가성

고 현 철*

차 례

1. 양가성과 탈중심주의
2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주의의 양가성
3. 탈식민주의의 시적 저항
4. 생태학적 세계관과 동양사상
5. 동양과 서양의 대등한 공존
참고문헌

1. 양가성과 탈중심주의

양가성(ambivalence)은 탈중심주의적 사유의 표출로 이해된다.[1] 탈중심주의의 사유는 탈근대의 두드러진 인식의 틀인데, 정신/육체, 지성/감성, 초월/경험, 남성/여성, 서양/동양 등의 이분법에서 그동안 중심의 위치를 차지해 온 앞 항목에 대항하여 뒷 항목을 부각시키는 전략적 태도에 값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 항목과 마찬가지로 뒷 항목도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양가성은 가치의 무차별성과 이 가치를 지칭하는 언어의 무차별성 그리고 방향상실과 무주체성과 연관된다. 그러면서 이분법을 해체하려는 양가성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독백성과 단의성에 저항하는 카니발적 다성성과도 연관된다. 이 글에서는 양가성을 이분법을 해체하려는 탈중심주의적 표출로 이해하면서, 양가성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저항성과 무주체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포괄하고자 한다. 페터 지마(서영상 · 김창주 역), 『소설과 이데올로기 - 현대 소설의 사회사』(문예출판사, 1996) 참고.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 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현대시에 나타나 있는 동양과 서양의 문제는, 결국 현대시 작품에 형상화되어 있거나 내재되어 있는 탈중심주의적 사고의 일단을 살펴보는 것이 된다. 이것은 현대시 작품을 통해 탈근대의 두드러진 인식의 틀인 탈중심주의의 사유에 따라 '서양 중심, 동양 주변'을 전복시키는 태도와 관련된다. 이는 근대 서양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이 되고 전략적으로 동양을 부각시키는 게 된다.

2.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주의의 양가성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방식이자 지배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오랫동안 서양이 자신을 주체로 삼고 동양을 타자로 분리하여 차별적인 서열체계와 우열의식을 심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간 문화적 헤게모니의 장치인 것이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은 근대 서양의 지배적이고 위압적인 지식의 체계에서 생긴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는 근대에 와서 이루어진 서양의 지리적 확장과 식민지주의, 인종차별주의, 자민족중심주의와 결부됨으로써 지배의 양식으로 대두한 것이다.[2]

따라서 오리엔탈리즘에 저항하는 탈오리엔탈리즘적 사고는 지식의 체계를 권력의 제도와 실천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찾아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해 가는 지적이며 정치적인 실천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3] 탈근대의 탈중심주의적 사유 가운데 이러한 탈오리엔탈리즘적 사고가 바로 탈식민주의인 것이다.[4] 그런데, 탈식민주의는 그동안 여러 이론가에 의해 수

2) 에드워드 사이드(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1991). 특히, 11-58쪽, 525-587쪽 참고 바람.

3) 강상중(이경덕 · 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1997), 187쪽.

4) 권택영, 「탈식민주의와 문화비평 - 이론과 실천」, 『현대시사상』(고려원, 1996. 봄), 73쪽. 여기서 권택영은, 탈식민주의를 탈중심주의가 나라와 나라 사이 즉,

정 변화되어 온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이 변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다름 아닌 양가성(ambivalence)이다.

탈식민주의의 수정 변화를, 무어-길버트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출간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을 '탈식민주의 비평(criticism)', 그 이후를 '탈식민주의 이론(theory)'으로 구분한다. 이 때, '탈식민주의 비평'과 '탈식민주의 이론'은 식민주의의 담론적,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극복하고 피억압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목표를 공유한다. 그러나 '탈식민주의 비평'이 제3세계의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이었다면, '탈식민주의 이론'은 탈구조주의와 해체론을 비롯한 서구 이론의 원용으로 그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5]

우선, 사이드는 그의 『오리엔탈리즘』이 미셸 푸코의 지식-권력론에 의존함으로써 서양이 지닌 오리엔탈리즘의 일관성과 일방성을 드러내게 되어 저항담론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6] 『오리엔탈리즘』 이후의 저술들에서는 제3세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제국주의 내부의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저항에 무게를 둠으로써 사이드의 저항이 미심쩍은 것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7] 왜냐 하면, 이 경우, 사이드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지식인의 입장을 가지면서도 제국주의에 어느 정도 타협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조되어야 할 지배/피지배, 억압/저항의 관계가 타협과 조화의 관계로 변형되어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탈식민주의 이론의 성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아이자즈 아마드는 사이드가 제국주의 체제 내에서 제국주의의 언어를 이용하여 제국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제3세계 출신 지식인이 서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간주하기까지 한다.[8] 문화적 식민지인이 아무리 제국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는 주변

제3세계의 문제로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 이경원, 「저항인가, 유희인가? : 탈식민주의의 반성과 전망」, 『문학과 사회』(문학과지성사, 1998.여름), 756쪽 참고.

6) 위의 논문, 729쪽 참고.

7) 『오리엔탈리즘』 이후에 간행된 사이드의 대표적인 저술은 『문화와 제국주의』(김성곤 · 정정호 역, 창, 1995)이다.

8) 고부응, 「에드워드 사이드 : 변경의 지식인」, 『현대시사상』(고려원, 1996.봄),

부에만 위치할 뿐 결코 지배권력의 중심부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9]

여기서, 제국주의 체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언어를 이용하는 전략을 아마드는 양가성(ambivalence)이라 했는데, 이 개념은 호미 바바의 탈식민주의 이론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된다. 바바의 양가성은 제국의 주체를 모방하는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것으로, 멀리는 오이디푸스의 구조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10] 바바의 탈식민주의 전략인 양가성은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분열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것인데,[11] 바바는 이 양가성을 라캉의 흉내내기(mimicry)로 설명한다.[12] 이 경우 흉내내기는 적에 저항하기 위한 닮음으로, 일종의 위장이 되는 것이다.[13]

바바의 양가성은 서구/비서구, 중심/주변, 지배/피지배의 이분법적 도식을 해체하려는 탈식민주의의 정교한 전략이긴 하지만, 식민지 침탈과 억압이라는 역사적 실재와 특수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단순한 이론적 천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는 탈식민주의 담론의 실천과정이 식민권력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이 식민권력의 재생산을 동시에 수반하는 가능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14]

탈식민주의가 서구/비서구, 중심/주변, 지배/피지배의 이분법적 틀을 해체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보다 세련되었지만, 정치적 '행동'은 제3세계의 몫으로 하고 철학적 '사유'는 서구의 전유물로 구분하는 전지구적 노동 분화를 조장

105-107쪽 참고.

9) 김성곤, 「탈식민주의적 책읽기와 영문학 연구」, 『외국문학』 (열음사, 1994. 봄), 19쪽.

10) 민승기, 「바바의 모호성」, 『현대시사상』(고려원, 1996.봄), 130쪽 참고.

11) 프란츠 파농이 1952년에 출간한 책 『검은 피부, 하얀 가면』(Black Skin, White Mask)는 제목 자체에서 비서구인의 분열증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최근 번역(이석호 역, 인간사랑, 1999)되어 나와 있다.

12)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라캉의 이론서, 마단 사럽(김해수 역), 『알기 쉬운 자끄 라캉』(백의, 1994)과 권택영,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이론』(민음사, 1995), 15-123쪽 참고 바람.

13) 권택영, 앞의 논문, 82-83쪽.

14) 이경원, 「탈식민주의론의 탈역사성 - 호미 바바의 '양면성' 이론과 그 문제점」, 『실천문학』(실천문학사, 1998.여름), 258-273쪽 참고. 인용 논문의 제목에서 보이는 '양면성'이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양가성'이다.

하면서 분열증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이론의 주변성은 탈피한 대신 이전의 '탈식민주의 비평'이 지녔던 전복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15] 그리고 지배 주체는 물론 저항 주체도 '탈중심화'해야 하는 양가성의 개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간과함으로써 서구의 다문화주의가 노리는 중심에 대한 비판의 약화를 초래하기 쉬운 것이 되고 있다.[16]

탈식민주의 이론은 이것의 이론화 · 제도화 · 서구화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탈식민주의의 저항성과 전복성이 퇴색해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의 위치 설정은 자칫하면 이항대립적 논리가 되기 쉽긴 하지만, 저항 담론의 구성에서 이 과정이 온전히 생략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도 탈식민주의의 역사성과 실천성은 제3세계의 현실과 입장에 뿌리를 내려야만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17]

그러나 탈오리엔탈리즘적 사고인 탈식민주의는 결코 이항대립을 통하여 또 다른 지배방식, 이를테면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을 꿈꾸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탈식민주의에서 지향하는 저항은 어디까지나 방법론적인 저항인 것이다.[18]

근래에 간행되어 널리 읽히고 있는 새무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은[19] 다름 아닌 재무장한 오리엔탈리즘으로 동양에 대한 새로운 봉쇄전략을 드러내고 있는 저서에 해당한다.[20] 이와 같이 서양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오리엔탈리즘을 생산하여 동양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

15) 이경원, 「저항인가, 유희인가? : 탈식민주의의 반성과 전망」, 753-756쪽 참고.

16) 위의 논문, 750-761쪽 참고.
고갑희, 「한국의 영문학 연구와 페미니즘 : 페미니즘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이론의 재접화」, 『안과 밖』(1996년 하반기) 참고.

17) 이경원, 「저항인가, 유희인가? : 탈식민주의의 반성과 전망」, 762-780쪽 참고.

18) 강상중, 앞의 책, 174-204쪽 참고. 일본의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은 이 책, 77-133쪽 참고 바람.

19) 새무얼 헌팅턴(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김영사, 1997)

20) 강정인, 「오리엔탈리즘으로 무장한 새로운 냉전질서의 구상 -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 동아시아 문화 포럼』(열화당, 1998), 258-272쪽.

따라서 탈오리엔탈리즘적 사고로서의 탈식민주의는 동양과 제3세계의 입장을 견지하여 서양의 새로운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저항을 내보여야 한다. 그리고 서양 중심의 보편성에 저항하여, 서양과 차이를 가진 동양이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적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21]

3. 탈식민주의의 시적 저항

현대시에 나타난 동양과 서양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이 글의 논조가 '서양 중심 동양 주변'을 전복시켜 전략적으로 서양에 저항하고 동양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위에 언급한 사항 때문이다.

탈식민주의는 특권적인 장으로서의 서양 중심에 대항해서 동양을 복권시키려고 하는 탈근대의 사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탈식민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식민지국가가 제국주의에 의한 정치적 예속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화적 혹은 경제적으로 제국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식민지적 상황을 직시하고 제국주의의 문화적 혹은 경제적 억압구조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문학 내지 문화 운동을 가리킨다.[22] 따라서 탈식민주의는 반제국주의 및 민족주의 그리고 제3세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민족주의는 종래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서 비교문화적이고 통문화적인 민족주의의 모습을 띠게 된다.[23]

---

21) 치누아 아체베(이석호 역), 『제3세계 문학과 식민주의 비평』(인간사랑, 1999), 133-134쪽,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열음사, 1992. 여름), 22-23쪽. 여기서 치누아 아체베가 「식민주의 비평」에서 유럽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한 '보편성'이란 용어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유럽이 아프리카에 부여한 정체성을 탈정체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동양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22) 빌 애쉬크로프트 외(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민음사, 1996), 12-29쪽 참고.

23) 「'탈식민주의시대의 글쓰기와 책읽기' 특집을 엮으며」, 『외국문학』(열음사, 1992. 여름), 8-9쪽.

탈식민주의의 문화전략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탈식민화'(Decolonization)인데, 이는 식민지 이전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다시 회복하거나 문화적 합병을 제안하는 방법을 말한다. 둘째는 '폐지'(Abrogation)인데, 이는 지배문화를 거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셋째는 '전유'(Appropriation)인데, 이는 중심문화의 언어를 바꾸어서 재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넷째는 '되받아쓰기'(Write Back)인데, 이는 지배 언술에 의해 성전화된 텍스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쓰면서 지배 언술의 음모와 허구성을 폭로하는 방법을 말한다.[24]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탈식민주의 문화전략을 활용하여 서양(중심)에 대한 저항과 동양(주변)의 부각이 제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시작품의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씌어진 김지하의 판소리시는 전통구비장르인 판소리를 패러디하는 반근대성의 시적 방법론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반근대성은 작품의 구체적인 양상으로는 주체적이지 못한 근대에 대한 비판과 탈식민주의의 문학 전략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영광입니다 각하 근대화작업에 얼마나 고되십니까 각하
> 오늘은 평민이래두, 허허허 이 집이 바로 근대화의 상징이군, 잘됐어 잘됐어 잘됐어!
> ……(중략)……
> 휘황한 샹들리에 휘황한 저 아련한 베르사이유宮의 저 아련한 추억!
> 바닥에는 카펫 벽에는 타벤 그 위엔 거대한 베라스케쯔
>
> – 김지하, 「蜚語」 중 「尻觀」 부분[25]

위 인용은 고관이 묘령의 사치스러운 여인과 동침하려고 거대한 호텔에 들

24) 빌 애쉬크로프트 외(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민음사, 1996).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1992. 여름), 24-26쪽. 송현호, 「채만식의 탈식민적 경향에 대한 고찰」, 『관악어문연구』 제17집(서울대 국문과, 1992), 13-15쪽 참고.

25) 김지하, 『오적 - 담시집』(결정본 『김지하 시전집』 3, 솔, 1993)

어가는 대목인데, 추악한 일을 위해 고관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스스로 평민의 입장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추악한 일의 장소로 제공되는 호텔이 "근대화의 상징"으로 나오는데, 고관의 의식 속에 서구의 추억이 겹쳐진다. 이는 서양에만 경도된 근대화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된다. 여기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풍자대상인 고관은 '고관(高官)'으로도 읽힌다. "근대화 작업" 곧 서구화 작업에 힘써 온 고관에 대한 풍자는 주체적이지 못한 근대화에 대한 풍자로 연결된다. 이는 반서구의식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김지하가 우리 전통 장르의 하나인 판소리를 패러디하여 판소리시를 생산한 것은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탈식민주의적 색채를 다분히 띠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26] 다시 말하면, 김지하가 우리의 전통 문화인 판소리에 대해 재인식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판소리시를 생산함으로써 반서구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민족 문화의 회복을 통한 민족 주체 확립의 '탈식민화'(Decolonization)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짝마다 번쩍거리는 저 미제 알파벳은
아시아를 좀먹는 하나의 음모이다
거리마다 흘러가는 저 자본의 물결은
아시아를 목조르는 합법적 강간이다
……(중략)……
거리마다 흘러가는 저 팝송가락은
아시아 사람들의 신명이 아니다
칼가루를 친 제국의 음모가
종말처럼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뿐

- 고정희, 「브로드웨이를 지나며」 부분[27]

이 시는 고정희 시인의 유고시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에 수록되어 있는 시이다. 그런데, 이 시집은 시인이 작고하기 일년 전인 1990년 아시아 종교음악연구소 초청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탈식민

26) 고현철, 『현대시의 패러디와 장르 이론』(태학사, 1997), 133-136쪽 참고 바람.
27)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창작과비평사, 1992)

지 시와 음악 워크샵'에 참여하면서 쓰기 시작한 「밥과 자본주의」, 「외경읽기」의 연작시를 중심으로 묶여져 있다. 그래서 '탈식민주의 시'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위에 인용한 시 「브로드웨이를 지나며」를 통해 고정희는, 환유적 기법을 따라 "미제 알파벳"으로 처리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자본의 물결"이라는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은 제3세계인 가난한 나라 "아시아"를 여전히 "좀먹"고 "목조르는" 식민지적 지배에 다름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탈식민주의의 문화전략 가운데, 지배문화를 거부하는 '폐지'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고정희는 여전히 식민 상태에 있지만 '경보장치'가 없는 아시아를 사뭇 교도적인 목소리로 깨우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상표는 아시아인의 희망이 결코 아니며,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팝송가락"도 아시아인의 "신명이 아니"라고. 그것은 "칼자루를 쥔 제국의 음모"일 뿐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고정희는 이와 같이 이 작품에서 지배 언술인 "희망"과 "신명"의 허구성을 폭로하여, 이것이 사실은 "제국의 음모"라고 되받아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희는 지배문화를 거부하는 '폐지(Abrogation)'에다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지배 언술의 음모와 허구성을 밝혀 다시 쓰는 '되받아쓰기(Write Back)'의 탈식민주의 문화전략을 활용함으로써 탈식민주의의 시적 저항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정희는 다른 시 작품에서, 19세기 말 스페인제국으로부터의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했던 필리핀의 국부 호세 리잘의 목소리를 빌어, 다음과 같이 격정적으로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로부터의 해방을 힘껏 부르짖는다.

제국의 날카로운 채찍이 그대 등을 후려치고
겨레의 가난으로 등이 휘어졌구나
……(중략)……
함께 가자, 아시아인이여
우리는 이제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
침략의 술잔으로 축배를 들던

백인의 시대는 끝났다
아시안이 아시안의 적이던 시대도 끝나야 한다
침략의 경제는 아시아의 적이다
침략의 문화는 아시안의 적이다
침략의 정치는 아시아의 적이다
독점자본의 칼을 버리라 아시아여
침략의 유산을 버리라 아시안이여
그리고 함께 우리 함께
꿈에도 그리는 평화의 시대를 우리 힘으로 열어 젖히라
동방의 힘으로 동방의 빛으로
세계 해방의 등불을 밝히라
- 고정희, 「호세 리잘이 다시 쓰는 시」 부분[28]

또한, 이동순의 시집 『그 바보들은 더욱 바보가 되어간다』는 제3세계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탈식민주의 및 탈제국주의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시편들을 상당수 수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제3세계적 인식은 「새벽독서」라는 시작품을 통해 "아랍사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아랍의 역사를 우리 역사와 동일시하고 있는 데서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제화 시대라 하는 90년대에 오면, 강대국 미국의 경제적 침략 의도를 깔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우리 농촌의 궁핍은 더욱 극심해져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동순은 이 문제를 시로 형상화하면서도 탈식민주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저 강대국 놈들이
우리네 살림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대대로 땅파먹고 살아온 우리 농민들을 이잡듯 죽이려고
수입 개방 앞세우며 우루루 우루루
떼지어 몰려오는 소리라는 것쯤은 알아
- 이동순, 「우루과이 라운드」 부분[29]

28) 위의 시집

농민 화자의 입을 통해 언어유희("우루루 우루루")까지 적절히 활용하여 우루과이 라운드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는 이 시는 탈식민주의적인 색채를 상당히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 시는 이른바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이후의 세계화 · 개방화의 경제체제가 약소국에서는 새로운 경제침략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그 음모와 허구성을 '되받아쓰기(Write Back)'의 탈식민주의 문화 전략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4. 생태학적 세계관과 동양사상

탈근대의 중요한 사유의 틀로 요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생태학적 세계관도 서양중심을 반성하고 동양을 부각시키는 탈중심주의적 사유의 중요한 하나로 이해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서양의 근대주의 세계관에 대립하는 것이다. 근대화를 줄기차게 추구하던 근대주의 세계관은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으로서 자연을 오직 인간의 기술적 조작의 대상, 즉 '도구적 이성'의 대상으로 취급한다.[30] 이는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해석에 기인한다.

생태학적 세계관은 서양의 근대주의 세계관에 저항하는, 동양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자연중심주의의 세계관이다. 인간을 지구 생태계(자연)의 일부로, 그래서 생태계의 체계적인 법칙에 종속된 존재로 보는 사고방식이 바로 생태학적 세계관인 것이다.[31]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생을 추구해 온 동양의 자연관, 인간의 자연에의 귀의를 강조하는 동양사상은 생태학적 세계관의 바탕이 되고 있다.[32] 생태학적 세계관은 생명적인 세계관으로서, 지구의 모든 생

29) 이동순, 『그 바보들은 더욱 바보가 되어간다』(문학과지성사, 1992)
30) 구승회, 『에코필로소피』(새길, 1995), 63쪽.
31) 데이비드 페퍼(이명우 외 역), 『현대환경론』(한길사, 1989) 용어해설 참고.
32)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엮음, 『동양사상과 환경문제』(모색, 1996). 송희복, 「서정시의 화엄경적 생명 원리」, 신덕룡 엮음, 『초록 생명의 길 - 에코토피아를 위한 시론』(시와사람사, 1997). 최재목, 「양명학과 환경윤리」와 양형진, 「생명세계에서의 연기론」, 『동아시아의 문화와 사상 - 동아시아문화포럼』(열화당, 1998). 정재서, 「정경교융(情景交融)의 시학과 생태학적 문학론」과 윤찬원, 「생태주의와

명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러브록의 '가이아'(Gaia) 이론과 장회익의 '온생명' 이론은 바로 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양의 생태주의 사상가는 알게 모르게 동양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특히 카프라를 비롯한 근본생태주의 계열의 사상가에서 두드러진다. 무엇보다도 동양사상이 함축하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조화는 생태학적 세계관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33]

그러나 생태학적 세계관이 동양적인 사유체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발상이 바로 21세기에는 이 세계가 동양적인 세계관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생태주의는 크게 근본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로 대별되는데, 사회생태주의가 주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사회생태주의는 생태문제와 사회구조를 결합시킨 것으로, 동양적 신비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생태주의 자체가 지향하려는 것도 현재의 삶의 양식을 과거 동양적 세계관에서 작동하던 보수적인 전제정치와 농경경제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 것이다.[34]

이 글에서 생태학적 세계관과 동양사상을 관련시키고자 하는 것은 생태학적 세계관이 동양사상에 연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서양중심주의를 비판하는 탈근대적인 입장에서 동양사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 글의 논지는 서구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의 구체적인 극복 방안으로서 동양문화와 사상이 부각되어야 하고, 동양의 모습을 바로 동양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읽어내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35]

일찍이 사회변혁론자인 마르크스조차도, 그들(동양)은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서양)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서양우월주의-동양열등주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상기할 때,[36] 보다 중요

도가 사상」, 『비평』(생각의 나무, 1999. 상반기) 등을 참고 바람.

33) 머레이 북친(문순홍 역), 『사회생태론의 철학』(솔, 1997) 해제 「북친의 삶과 사회 생태론」, 239쪽.

34) 위의 논문, 234-240쪽

35) 이런 입장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저술로 우실하, 『오리엔탈리즘의 해체와 우리 문화 바로 읽기』(소나무, 1997)를 들 수 있다.

36) 에드워드 사이드(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1991), 6-7쪽.

한 문제는 사회변혁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의 변혁인가 하는 점이다. 이 글의 논지가 우리(동양)의 입장, 주체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어쨌든, 생태학적 세계관은 동양의 일원론적 세계관으로서 인간과 자연의 합일, 자아와 세계의 합일을 지향한다. 이는 다름 아닌 서정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려고 하는 융합의 세계관과 일치된다. 원래 서정의 본질은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 즉, 인간과 자연의 합일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생태학적 상상력의 추구는 시에서는 바로 서정의 회복과 맞물려 있게 되는 것이다.

생명
한 줄기 희망이다
캄캄한 벼랑에 걸린 이 목숨
한 줄기 희망이다

돌이킬 수도
밀어붙일 수도 없는 이 자리

노랗게 쓰러져 버릴 수도
뿌리쳐 솟구칠 수도 없는
이 마지막 자리

어미가
세끼를 껴안고 울고 있다
생명의 슬픔
한 줄기 희망이다

– 김지하, 「생명」 전문[37]

생명사상을 추구하고 있는 김지하 시인에게 '생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나 최

37) 신덕룡 엮음, 『앞의 책』, 「생명시선집」

대의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있어야 하는 세계'로서의 생명성이 그대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성이 실현되지 못하는 '있는 세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바로 "캄캄 벼랑"에 다름 아니다. 결코 희망적이지 못한, 아니 절망적이기까지 한 "마지막 자리"에서 생명성을 갈구하고 있다. "한 줄기"라는 말은 그래서 씌인 것이다. 생명 가득한 상황을 그리는 게 아니라 생명 없음의 현실에서 희망의 생명을 추구하는 힘을 이 시는 보여주고 있다. 생명이 "슬픔"이면서 "희망"이라는 역설은 이에서 성립된다.

그리고 "어미가 새끼를 껴안"아 우는 모성애를 통해서 생명성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사랑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사실은 지극히 전통적인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동양정신에서 사랑의 개념인 '인(仁)'은 다름 아닌 슬픔을 감싸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인 것이다. 김지하의 시세계가 동양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단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작품은 김지하의 시세계가 동양의 미학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백의 미학이다. 주지하다시피, 동양화는 여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을 보여준다. 김지하의 시는 사상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미학의 측면에서도 동양의, 여백의 미학을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행과 행, 연과 연 사이의 틈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어있는 시형식을 통해 무한한 생명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38]

5. 동양과 서양의 대등한 공존

궁극적으로 동양과 서양은 서로 상보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의 관계에 있고,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38) 특히, 김지하의 『중심의 괴로움』(솔, 1994)에 실려있는 시편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서양 중심, 동양 주변'으로서 억압받아 온 우리 동양의 현재 입장에서는 동양 부각의 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기말의 전환기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생태학적 세계관의 전개와 동양사상의 재인식은 이를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탈근대의 중요한 인식의 틀인 탈중심주의적 사고는 우리의 경우 해체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주체의 정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양가성도 궁극적으로는 탈중심주의적 사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우리가 또다시 서구의 해체를 그대로 이어받아 스스로를 해체하여 역사성과 실천성을 상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체 정립을 통해 그 저항성과 전복성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탈식민주의의 이론과 실천의 방향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탈식민주의는 서구의 인종우월성, 지배논리, 보편화 지향성 등을 비판하는 방법론적 저항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체계들의 변별성을 찾아 각 문화의 차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문화 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39] 즉, 서양과 동양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기 위한 현재적 저항 전략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강정인, 「오리엔탈리즘으로 무장한 새로운 냉전질서의 구상 -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 동아시아 문화 포럼』(열화당, 1998)

고갑희, 「한국의 영문학 연구와 페미니즘 : 페미니즘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이론의 쟁점화」, 『안과 밖』(1997년 하반기)

고부응, 「에드워드 사이드 : 변경의 지식인」, 『현대시사상』(고려원, 1996.봄)

고현철, 『현대시의 패러디와 장르 이론』(태학사, 1997)

39) 이홍필, 「달콤한 유혹과 고통스런 버텨읽기 : 탈식민주의적 책읽기의 한 방법」, 『외국문학』(열음사, 1994. 봄), 47쪽.

구승회, 『에코필로소피』(새길, 1995)
권택영, 「탈식민주의와 문화비평 - 이론과 실천」, 『현대시사상』(고려원, 1996.봄)
권택영,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이론』(민음사, 1995)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열음사, 1992.여름)
김성곤, 「탈식민주의적 책읽기와 영문학 연구」, 『외국문학』(열음사, 1994.봄)
민승기, 「바바의 모호성」, 『현대시사상』(고려원, 1996.봄)
송현호, 「채만식의 탈식민적 경향에 대한 고찰」, 『관악어문연구』(서울대 국문과, 1992)
송희복, 「서정시의 화엄경적 생명 원리」, 『초록 생명의 길 - 에코토피아를 위한 시론』(신덕룡 엮음, 시와사람사, 1997)
양형진, 「생명세계에서의 연기론」, 『동아시아의 문화와 사상 - 동아시아문화포럼』(열화당, 1998)
우실하, 『오리엔탈리즘의 해체와 우리 문화 바로 읽기』(소나무, 1997)
윤찬원, 「생태주의와 도가 사상」, 『비평』(생각의 나무, 1999년 상반기)
이경원, 「저항인가, 유희인가? : 탈식민주의의 반성과 전망」, 『문학과 사회』(문학과지성사, 1998.여름)
이경원, 「탈식민주의론의 탈역사성 - 호미 바바의 '양면성' 이론과 그 문제점」,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1998. 여름)
이홍필, 「달콤한 유혹과 고통스런 버텨읽기 : 탈식민주의적 책읽기의 한 방법」, 『외국문학』 (열음사, 1994.봄)
정재서, 「정경교융(情景交融)의 시학과 생태학적 문학론」, 『비평』(생각의 나무, 1999년 상반기)
최재목, 「양명학과 환경윤리」, 『동아시아의 문화와 사상 - 동아시아문화포럼』 (열화당, 1998)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엮음, 『동양사상과 환경문제』(모색, 1996)
강상중(이경덕 · 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1997)
데이비드 페퍼(이명우 외 역), 『현대환경론』(한길사, 1989)
마단 사럽(김해수 역), 『알기 쉬운 자끄 라깡』(백의, 1994)
머레이 북친(문승홍 역), 『사회생태론의 철학』(솔, 1997)

빌 에쉬크로프트 외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민음사, 1996)
새무얼 헌팅턴(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김영사, 1997)
에드워드 사이드(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1991)
에드워드 사이드(김성곤 · 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창, 1995)
치누아 아체베(이석호 역), 『제3세계 문학과 식민주의 비평』(인간사랑, 1999)
페터 지마(서영상 · 김창주 역), 『소설과 이데올로기 - 현대 소설의 사회사』(문예출판사, 1996)
프란츠 파농(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인간사랑, 1999)

Abstract

A Study on 'Ambivalence' and Postmodern Identity of the Orient in the Korean Modern Poetry

Ko Hyun-Chul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ways in which Korean modern poetry overturns the idea that the West represents the Center, while the East corresponds to the pheriphery. I claim that the overturning is made possible by the aid of the idea of 'decentralism'. Furthermore, I points out that 'ambivalence' is important under the idea of 'decentalism' which is one of the outstanding paradigms of postmodernism.

This paper examines the central ideas of orientalism and postcolonialism, and claim that 'ambivalence', a concept used by postcolonialism, is an sophisticated but weak theoretical notion in terms of historical view and activism.

This paper also summarizes other culture-based concepts of postcolonialism including 'decolonialism', 'abrogation', 'appropriation', and 'write back', and analyzes the poems of Ji-ha Kim, Jung-hee Ko, and Dong-soon Lee with reference to the culture-based concept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idea of 'ecologism', which is one of the outstanding paradigms of postmodernism. It is pointed out that for the analysis of literature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nature-centered 'ecologism', which is based on oriental view of world. The idea of ecologism has been claimed to emphasize the unity between the nature and human beings. I claim that the nature of lyricism in the literature is closely related to the unity between the nature and self, and that the Ji-ha Kim's poems follow the ecologistic view of world.